

종합·해설

선거인단, 제주·울산·강원·충북 네곳 합친것보다 많아

민주 대선경선 호남표에 달렸다

전북 9만5천명... 광주·전남은 12만명 이상 문 “대세론” vs 손김정 “대역전극” 판가름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은 결국 호남 민심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경선이 파행을 겪고 있지만 선거인단 규모와 경선 일정 등에서 호남 민심이 전체 관도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과 손김정, 김두관, 정세균 후보의 ‘대역전극’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26일 민주당이 밝힌 지역별 선거인단은 제주 3만6329명, 울산 1만4798명, 강원 1만102명, 충북 3만1323명, 전북 9만5707명, 인천 2만4720명이 다.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은 아직 최종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최소 12만~13만명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남 선거인단은 최소한 20만명 이상으로 수도권에 제의하고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경선이 전체 일정의 중후반에 자리잡고 있어 전체적인 관세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단, 울산과 강원은 선거인단 규모가 작아 제주 경선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충북은 네 후보가 모두 자신감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접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1차 빅 매치’는 9월1일 치러지는 전북 경선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북 선거인단의 규모는 그 앞에서 치러지는 제주, 울산, 강원, 충북 선거인단을 모두 합친 숫자를 상회한다. 초반 4연전에서 밀렸다고 해도 선거인단 규모가 큰 전북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표차이는 단숨에 역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전북에서의 승리를 통해 모바일 투표 논란을 종식시키고 ‘대세론’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2차 빅 매치’인 광주·전남지역 경선 승리를 염위해 ‘대세론’을 최종적으로 확인, 사실상 경선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후보 측 관계자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 호남 민심은 문재인 후보에 큰 지지를 보내 주셨다”며

“이 같은 호남 민심이 단숨에 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문재인 후보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손김정, 김두관, 정세균 후보 측에서는 모바일 투표의 불합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강원, 충북지역 경선에서 선전하고 ‘전북 대첩’을 통해, ‘대역전극’의 계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전북 대첩을 계기로 정치적 상징성이 큰 광주·전남지역 경선 승리를 만들어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대역전극’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비문 후보 측 관계자는 “호남에서 밀리면 사실상 끝이라는 점에서 캠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며 “호남 민심은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 때 마다 엄청난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대역전극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교예술실험센터를 방문, 대학생 및 공연예술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선 기획단 인선 난항

서병수·최경환·유승민 경합 속 제3 인물론도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한 대선기획단 인선 구성이 예초 일정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당 대변인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금일 대선기획단장 발표는 없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예초 이날까지 대선기획단장 등을 포함한 인선을 마친 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대선기획단은 내달 말로 예상되는 선대위 출범 전까지 박 후보의 대선 본선 전략과 정책, 조직 등 각

분야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기구라 점에서 기획단장 등 인선방향에 정차된 안팎의 관심이 높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기획단장 인선을 두고 황우여 대표 등과 의견을 교환하며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이날 “박 후보가 속고를 거듭하고 있다. 아직까지 (단장을)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현재까지 당 안팎에서 대선기획단장으로 거론된 인사는 친박계 핵심인 서병수 사무총장과 최경환 의원 등이다. 유승민 의원에 거론되고 있다.

서 총장은 당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만큼 당 차원의 선거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경선 캠프를 총괄한 친박계 핵심으로 박 후보와 손발이 잘 맞는다는 점에서 두 사람 모두 적합하다는 게 당 안팎 인사들의 설명이다.

대선기획단에 호남 출신 인사가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2007년 박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이정현 최고위원과 이상일 박 후보 캠프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상일 의원은 이번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박 후보 측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민주 대선공약 고심 안철수 “경찰 사찰 경악”

경제민주화·보편복지 박근혜에 주도권 뺏겨

경찰 “탐살통 정보 수집한 적 없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공세적 정책공약 행보로 민주통합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는 물론이고 반값 등록금 등 세부 공약에서도 그 주도권이 박 후보에게 넘어간 듯한 상황이 연출되자 젊은 세대와 중도층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봉하마을 및 동교동 방문 등 박 후보의 대통령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민주당은 24일 당 ‘반값등록금 특위’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박 후보는 당장 반값 등록금을 위한 여야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전날 TF 성격의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도 발족,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허구성도 날달이 파헤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당과 대선 주자들의 지지

율이 좀처럼 뜨지 못하면서 주요 정책들도 국민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데 민주당의 근본적 고민이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경제정책 기조 전반을 점검하고 새누리당과 선명성을 부각시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반값 등록금 관련 예산안을 적극 반영시키는 한편 분야별 본부 체제를 가동해 정책 개발 및 홍보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대선 의식, 정체성에 역행하는 공약을 쏟아내며 중도세력을 유인하려 하는데도 정차 차별화가 잘 안 돼 고민”이라며 “국민들이 욕식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범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둘러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지난 25일 경찰이 안 원장의 탐살통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에 대한 사찰을 벌였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 보도와 관련,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증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안 원장 측의 이 같은 반응은 만약 경찰의 사찰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 측은 현재 정치권을 포함해 안 원장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고의로 퍼뜨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 변호사는 안 원장의 네거티브 대응 페이스북 페이지 ‘진실의 친구들’에서도 “사실이 황당무계한 터무

니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면서 “이러한 대면 알 만한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등이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듣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하도 많은 사람이 얘기해서 안 원장에게 한 번 물어본 일도 있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고 반문하더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 본 결과 당시에 그런 정보를 파악하려고 시도하지도, 수집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초라면 안 원장이 그리 비중 있는 인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런 인사의 여자관계나 탐살통 출입 등 여부는 정보보고 대상도 아닐뿐더러 내사 등 착수 요인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박혜자, '반값등록금 실현' 1인 시위

김영록, 해남 화전 건설 추진 반대

국회 교과위원인 민주통합당 박혜자 의원은 26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회의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그는 이날 “등록금 고지서 금액이 반액으로 명시돼야 반값등록금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다음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진정성을 갖고 반값등록금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전남 해남 화원 화력발전소 건설 재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해남군의회에서 군이 제출한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이 부결됐는데도, 사업자인 MPC코리아홀딩스 측이 이를 무시하고 찬성 촉구인 서명을 받아 유치 청원서를 군의회에 접수하는 등 사업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유치청원에 대한 군의회가 한 번 결정된 사안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석 달 만에 이를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혼란과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모집

1 연수일정 (2012년 제9기)

- 개강일시 : 2012. 9. 7(금) 기초A반 9:30, 기초B반 19:00 심화A반 9:30, 심화B반 19:0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2. 7. 16(월) ~ 2012. 8. 31(금)
- 수업기간 : 2012. 9. 7(금) ~ 2012. 12. 21(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반 : A반, B반 각 30명
심화반 : A반, B반 (진급생과 편입생 약간명)
* 기초반 수료 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토요일
A 반 : 금, 토 오전 09:30~12:30
B 반 : 금 야간 19:00~22:00 토 오후 14:00~17: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2단계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 ①(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2 원서교부 및 접수처 (토, 일 공휴일 휴무)

- 전 화 : (062) 530-3873-3876
- 담당교수 : H. 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 074-107-004114 (예금주 :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010-3666-4646

수익성최상!

① 키즈테마카페임대

- 카페, 파티룸, 뷰티샵등
- 면적 : 2,400㎡(725P)
- 주차 500대
- 보증금 3억/월1,800만

② 예식장 상설뷔페임대

돌잔치, 각종행사전문점

- 면적 : 2,824㎡(854P)
- 주차 500대
- 보증금 4억/월2,200만

③ 도심형 생활주택

메디컬센터부지

- 961㎡(290P)
- ㎡당 145만
- 150세대, 15층
- 14억 투자 = 수익11억

④ 25억 = 월2,400만

- 대지1,342㎡ 건물 5,700㎡
- 보증금 4억 / 월 4,400만
- 매매65억

010-3666-4646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각화동 아울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 4~5층 각 130평
- * 6층 110평
- 보5천 / 월200만
- * 지하 140평
- (임대가 및 조건조정가)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 15평~29평
- 9~12% 높은수익률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 매가29억~100억대
- 물건다량 보유
-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1층)

경매투자 NPL물건 특수물건

→ 경매 배우실 분!
→ 경매 입찰 하실분!
→ 경매 물건에 투자하실 분!
→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주 오천경매 투자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범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